

# 광양시의원 해외연수 허위 보고서 들통

광양시의회 P모 의원이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P모 의원은 올해 6월 5박6일 일정으로 이집트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견학을 통해 선진 관광자료수집 및 관광지 개발에 활용할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한 뒤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집트 여행경비를 지원 받았다.

그러나 P 의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시의회에 제출한 연수결과 보고서에 보면 5박6일 동안 이집트 관광정을 방문해 관광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게 유일한 공무였으나, 이미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드

## 이집트 관광 다녀온 뒤 “관광청 방문했다” 거짓 기술

## 규정에 없는 국외여행 승인한 시의회도 따가운 눈총

러났다.

P의원은 일반 관광객과 다름없이 이집트 국립박물관, 카르낙 신전, 피라미드, 스피크스, 수도 멤피스, 뎀톤의 거상 등 유적지와 관광지 등을 돌아보는데 연수일정을 허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P의원은 이집트 관광청을 방문한 것처럼 연수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간부는 “시의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예산배정은 오랜 관습에 따른 특례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광양시의 혈세를 일부 시의원들이 관련법을 교묘히 이용해 사용(私用)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제2조 국외여행 범위를 보면 ▲외국 중앙정부 공식행사 초청시 ▲3개국 이상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한 국제회의의 참가시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의 출장시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한 공무로 국외 여행시 ▲시의회위원장의 명에 의해 공무

로 국외 여행시에 공무여행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P의원이 제출한 여행일정과 여행 계획서는 이같은 기준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광양시의회 의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허술하게 작성된 관광성 외유 계획서를 관련법 심사기준에 맞는지 따져보고 허가해야 옳았으나, 엄터리 심의를 거쳐 승인해줘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P의원은 “모 대학 의과대학 교수와 모 기업 관계자, 여행학회 회원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면서 “일행도 있고, 일정상 시간이 부족해 이집트 관광청은 방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결실의 계절’ 탐스런 석류

음식문화를 선도해가고 있다.

8일 고흥군 석류 농장에서 한 주민이 탐스럽게 익은 석류를 수확하고 있다. 전국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고흥석류는 환경친화적인 재배로 웰빙

〈고흥군 제공〉

# 여수산단 지하 원료 이송관 손상 현장조사

## 전신주 42기 아래 배관 균열·누유 여부 등

〈속보〉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지하 원료이송관 손상(본보 5일자 10면)과 관련, 한전과 배관 소유사 등이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에 나섰다.

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 등에 따르면 남동발전 인근 전신주 아래 지하배관 일부가 손상된 것에 대해 한전·LG화학·GS칼텍스·한화석유화학·제원산업·프레스에어코리 등과 산단 관로 관리를 맡고 있는 (주)POC 등은 지난 5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신주 52기 중 의심이 가는 지점 42곳을 발견하고 이 지점

에 대한 배관손상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현재 코팅막이 찢긴 상태로 발견된 제원산업 메탄올 이송관에 대해서는 10일 전신주를 이설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여수소방서도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협조공문을 통해 전신주 등 신설과 이설시 지하매설물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 후 시공할 것 등을 요청하고, 손상배관에 대한 균열과 누유(漏油) 여부를 검사해 결과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1996년 10월 매설한 제원산업 메탄올 이송관은 지난달 24일 정밀조사

과정에서 한전 전신주 아래 지점의 배관 코팅막 손상이 발견됐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방치되고 있다.

특히 문제의 배관 주변에는 5개사의 위험물과 고압 가스관이 매설돼 있고 사고지점의 4차선 도로에는 30여 개의 배관이 매설된 것으로 확인돼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형 폭발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배관 소유사들은 2004년 5월 한전이 전신주 교체 공사과정에서 매설배관을 손상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한전은 현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고흥군-中 요녕성 대련시 총공회

## 유자차 수출 등 교류협약 체결

고흥군은 지난 6일 군청 상황실에서 중국 요녕성 대련시 총공회와 고흥 유자차 등 농특산물 수출 확대 및 양국 지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호증진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대련시 총공회 쉬잔투 부국장과 수출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자차 수출확대 판촉 지원 우호협력과 수출 바이어 및 상공인간의 교류협력, 양국 지역 노동조합간의 상호 우의다짐과

문화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고흥은 중국에 연 1천100t 규모의 유자차를 수출해오고 있으며 특히 상해 대련지역은 연 700t 이상을 수출해 중국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해오고 있다.

고흥유자는 432ha의 규모에서 연간 6천여t가 생산되고 있으며, 일본·중국 등 7개국에 4천100여t 수출해오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

## 토지 관련 민원, 원스톱으로 척척!

## 곡성 '지적민원 도우미제' 운영

곡성군은 토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군민에게 고객 감동 실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적민원 도우미제'를 운영한다.

군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사항이나 측량에 관련되는 사항을 서면·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민원세정과 김중진 지적담당과 지적공사 윤두현 지사장을 지

적민원 도우미로 지정해 토지 관련맞춤형 지적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OK할 때까지 고객의 불편사항을 수집해 불만고객 제로화를 위한 고객관리를 강화하고, 완료된 민원은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를 실시하며,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Table with multiple columns and rows, containing various notices and advertisements. The header row includes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